

## 2. 마지막 일들 - 10.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살전 3:13)

\* \* \*

## 1.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 2:12)고 권면한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백성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알고 있는데 ‘구원을 이루라(work out)’는 말은 또 무엇인가 할 것이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이 불완전해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뜻이 아니다. 복음이 약속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다. 마지막 때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인데,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그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이런 의미에서 ‘두렵고 떨림’은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반영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 진노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알려주셨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노아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노아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이것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땅의 끝 날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그 날에 홍수로 모든 육체를 멸하실 것인데 노아에게 그 진노를 피할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에 옮겨 방주를 지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로 홍수가 찾아왔을 때, 그 방주로 들어가 구원을 얻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그의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일을 따르는 것, 곧 ‘구원을 이루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순종’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은 우리의 과거 죄와만 관련이 있지 않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현실임과 동시에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온전히 이루실’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죄사함 받는 것으로 구원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말씀 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아야 하는

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어 있어 그분의 강림을 준비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빌 3:20 \_\_\_\_\_

살전 1:8-10 \_\_\_\_\_

**Q.**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고전 1:4-9 \_\_\_\_\_

\* \* \*

## 2. 어둠에 있지 않은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둑 같이 임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마 24:36).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마 24:32-33)고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 징조들을 통해 인자의 재림이 임박한 때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시대의 징조들』이란 주제에서 다루었듯이 세상 끝의 징조들은 어느 시기에 한꺼번에 몰려서 나타나지 않는다.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고 진행될 수록 통증의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길어지듯이 세상 끝에 다다를수록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더 잦아지고 길게 일어나는 것이다(마 24:8).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점점 강도가 세지면서 찾아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말세의 끝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징조들이 있다.

첫째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다(마 24:14). 그제야 끝이 찾아온다. 바울 사도에 따르면 복음의 출발지가 유대 민족이었는데, 온 세상에 전파되는 마지막 종착역도 그들이 될 것이라고 했다(롬 11:25-32).

롬 11:25-32 \_\_\_\_\_

둘째는, 인류가 한 덩어리로 복음을 배역하고, 그들을 대변하는 한 인물, 곧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이다(살후 2:3-4).

살후 2:3-4 \_\_\_\_\_  
 \_\_\_\_\_

셋째는 우주의 변화로 지구에 위협이 가해지면서 땅의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다(눅 21:25-26; 계 6:12-16).

눅 21:25-26; 계 6:12-16 \_\_\_\_\_  
 \_\_\_\_\_

넷째는, 사람들의 삶이 어느 시대보다도 더 일상에 젖어 있는 것이다(눅 17:26-30; 살전 5:3). 영적인 관심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사람들은 주변에서 무슨 난리가 나든지 직접적인 일이 아니면 별 관심이 없고,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해도 냉랭하고, 오직 먹고 사는 일과 가정을 이루는 일과 장사해서 집안을 일으키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눅 17:26-30 \_\_\_\_\_  
 \_\_\_\_\_

이 네 가지 징조들을 종합해 볼 때, 사람들은 이기심과 돈에 매이고, 유대 민족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 생겨나는 반면 전세계적으로는 기독교를 조롱하고, 이런 시대조류를 따라 한 인물이 출현하여 자기를 신적 존재로 내세우고 조직적으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단 7:21-22).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러한 환란을 겪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지구 외부에서 위협이 발생하고, 인류가 무서워 떠는 중에 번개가 번쩍임 같이 인자가 재림하는 것이다(마 24:27).

**Q.**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세상은 일상을 이어가는 반면 성도들은 환란을 겪을 것이라는 말씀이 내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가? 나는 현재 실제로 그러한 환란을 겪고 있는가?  
 단 7:21-22; \_\_\_\_\_  
 \_\_\_\_\_

\* \* \*

### 3.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생각하지 않은 때에 도둑 같이 올 것이라고 예고하셨다.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지만, 사람들에게는 천 년이 천 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 결과 세상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약속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이유로 기독교를 조롱하고 만물이 예전처럼 아무 일 없이 그냥 있을 것이라고 예견한다(벧후 3:3-9).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까지 강립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과 자기 백성을 구분하시려는 의도가 있다. 누가 안일한 자이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인내로 견디는 자인지를 구별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기독교를 조롱하는 시대에 믿는 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계 16:15). 정체성을 잃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 젖어 사는 것이다. 모양으로만 신앙인이고, 생명은 거의 죽어버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누구라도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졸 수 있다(마 25:1-13). 하지만 평소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은 인자가 오실 때 영원한 생명과 사망으로 갈리는 결과를 낳는다. 일상에서 기름을 가지고 인자를 기다리며 사는 모습이란, 우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는(=간직하는) 것”이다(계 3:1-3; 딤후 3:13-15).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인내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성경 말씀이 흐려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고난을 당해 마음이 흔들리거나 순간 미혹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할 때 말씀이 마음에서 떠올라 다시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기름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다(계 3:11; 22:7).

계 3:1-3; 딤후 3:13-15 \_\_\_\_\_

기름을 가지지 않은 채 등불만 들고 있는, 모양만의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표시가 서로에게 참지 못하고 서로에게 원망을 쏟는 것이다(약 5:7-11; 마 24:10-13). 마음에 말씀이 간직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재림까지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 주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 신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없고(시 98:9), 못마땅한 일을 당하면 당장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다. 현실 원망자는 주님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살았기에 자기가 평생 쏟아낸 비판에 따라 주님의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Q.** 내 안에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과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살후 1:3-10 \_\_\_\_\_

\* \* \*

##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오늘을 기쁘게 살고, 내일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땅에서 구원을 이루셨지만, 우리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날 주님께서 그 구원을 영원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름으로 간직하고, 주님 오시는 날에 그 기름으로 등불을 더욱 밝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